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06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06
2020 년 09 월 06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081968106](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081968106)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09 월 06 일

차례

1. [비대면시대의비대면해고]	3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
3. [대리기사노동조합비인가에관해]	4
4. [문재인정부의대학구조조정에관해]	4

1. [비대면시대의비대면해고]

한동대학교생활관청소노동자들이코로나-19 기간동안학교운영이 어렵다는명분으로해고당한지 2 달이지났다. 출입카드를정지하고, 해고노동자들의사업장무단출입을금지했다. 흔해빠진수작이다. 하지만 한동대학교의저열함은흔해빠지지않았다. “그동안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라는현수막을걸었다. 사실상현수막으로해고통보를대체했다. 참으로비대면시대에걸맞는비대면해고였다하겠다.

하지만생각해보면, 청소노동자들의노동은언제나비대면이었다. 청소노동자들은사람들이보지못하는곳에서, 보이지않는노동을계속해왔다. 너무나도비대면이어서, 자기가청소하는건물의건물주-사용자-와도, 하청업체라는유리막안에갇혀서만이야기할수있었다. 이토록이나비대면노동을하는노동자이다보니, 저런열토당토않은비대면해고도가능한것이아닐까.

재난은평등하지않다. 그동안비인간적대우를받으며비대면노동을강제받아오던누군가이기에, 이제는재난이라는명목으로, 너무나도비인간적인방식으로, 비대면해고를경험하고있다.

그리고이제는, 해고당한노동자들이천막을치고, 소리를지르고, 구호를외치고, 집회를하고있다. “말할수라도있어속이라도후련”하다고한다. 비대면노동자들이얼굴을드러내고, 억울함을부르짖고있다. 우리는한동대학교청소노동자들의투쟁을지지하고응원한다. 한동대학교가재난의뒤에, 허울좋은법의뒤에숨는것이아니라, 노동자들의억울함과대면하기를촉구한다.

[https:// m.pressian.com/ m/ pages/ articles/ 2020090110390453568#0DKW](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90110390453568#0DKW)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2020 년 9 월 4 일, 노동부는대법원의판단에의거하여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전교조’) 에게법외노조통보처분하던결정을취소하였다. 노동부가전교조에게법외노조통보처분을전달한지 7 년만의일이다.

이는물론환영할만한일이며또한마땅히그러해야하는일일것이다. 하지만위와같은성과이전에중요한것은전교조가해고자들을끝까지포기하지않았다는점이다. 해고자는노동조합활동을할수없다는자본의논리에끝까지맞서싸워그들을지켜냈다는점에서전교조의이번투쟁, 그리

고그승리는한국노동조합운동사에서도분명한의미를지닌다고평할수있을것이다.

다시한번전교동지들의그간투쟁에감사와부채의마음, 그리고승리에대해마음깊이축하와연대의뜻을전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3. [대리기사노동조합비인가에관해]

'노동조합을만들권리'에의거하여여러노동조합들은만들어지고무너진다. 여기, 대리운전기사들의노동조합이그예시중하나다. 이대리운전기사들의노동조합은끊임없는요구에도불구하고'인가'와여러장애물덕분에노동조합을만들지못하고있다.

이러한세대속에서한가지근본적대답을던져보자. 노동조합을만들권리? 그러한권리가있다는것은알겠다. 그렇다면그권리가있는노동자가노동조합을만드는데어째서정부가그것을인가해주는것인가? 인간이 스스로몽치는것은당연한일이다. 노동자가, 인민이스스로의권리를지키고자했을때사람들과함께하는것은누가뭐라고할수없는일이다. 그런데정부와기업이그것에개입하는것은과연옳은가?

우리는노동조합을만들고자하는, 그리고스스로의권리를지키기위해노동조합에가입하고자하는모든인민들의행동을지지한다. 정부와기업은인민들이노동자로서스스로를보호하고자, 스스로의자유를행사하고자조합에가입하는것을막아서는안될것이다. 권리행사를막혀야할대상은바로정당하지않은권력과권리를가진정부와기업이니까말이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90109442488321#ODKW>

4. [문재인정부의대학구조조정에관해]

정권이바뀌었음에도대학구조조정은그이름만바뀐채이어지고있다. 이전정부부터이어져왔던구조조정사업을문재인정부는학령인구감소명목으로더가혹하게진행할계획이다. 언제나그래왔듯구조조정과정에서학습및교육직당사자와합의는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고교내청소노동자등관련노동자들의안위또한고려되지않고있다.

이문제에가장밀접하게교육하고학습하고노동하는이들을배제한채무슨개혁을하려고하는가? 정부의대학구조조정시도는그들이주장하듯

'필수적'도'합리화'도아니다. 이것은학교를기업으로예속화시키려는시도다. 이전정권부터진행된구조조정과프라임사업에서부터보듯정부는학문및연구기관으로서의대학의정체성을간과한채취업률지상주의적시각으로인문, 예체능계의퇴보와이공계의취업학교화를밀어붙이며대학을그저기업을위한노동력생산공장으로만들려하고있다. 또한인프라미비및정책적차별로인해태생적으로불리한지방의현실을개선하지아니하고방기한채그대로평가에반영시켜, 지방대학을고사시켜서울공화국을가속화시키고있음은덤편이다.

우리는학령인구감소를말하기이전에대학교육의무상화와민주화를말한다. 코로나로인해어려운경제적현실에도여실히 1년 700만원을넘기는대학등록금과사학비리로얼룩진대학환경이란현실에서학령인구가없다고말하기이전에모든민중이경제적부담없이학습할수있고자신의의견과요구를주장할수있는환경을먼저만들라. 정부가대학구조조정이라이름붙인자본에의예속화에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25>